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공화국창건 73돛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일을 뜻깊게 맞이하는 온 나라 인민은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 높은 강국건설의 새 력사를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경의와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 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공화국창건 73돛에 즈음하여 9월 9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신 원수님께서와 녀사께서는 한평생을 다 바쳐 진정한 인민의 나라,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 내 조국을 건설하시고 후손만대에 물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영생축원의 인사를 드리시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건설사상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덕훈 내각총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박정천 당중앙위원회 비서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덕훈 내각총리,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

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와 존경하는 녀사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김정은 원수님의 령도따라 혁명발전의 새로운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빛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헌신분투하여 당과 인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공화국창건 73돛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돛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열병광장의 단상에 높이 모시고 공화국의 자주적존엄과 위상을 과시하며 승리자의 대행진을 거행한 무한한 공지와 영예 속에 또다시 꿈만 같은 영광과 행복의 시각을 맞이하게 된 참가자들의 크나큰 격정과 환희가 촬영장에 차넘치

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도착 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사회주의조선의 국력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우리 공화국의 가장 영광된 시대,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김정은 원수님을 우러러 목공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강순남 로농적위군 사령관이 영접보고를 올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병의 환이 평가하시였다.

호에 따듯이 답례하시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우리 국가제일주의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 공화국의 억센 힘과 존엄을 세기에 떨치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 광명한 미래로 매진하는 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친 열병식참가자들을 고무격려 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창건일에 거행된 장엄한 열병식을 통하여 우리 국가의 민간 및 안전무력의 전투력과 단결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 높

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병비행 및 강하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전투비행사들과 락하산병들, 열병대원들의 손을 따듯이 잡아주시며 그들의 성과를 치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든 열병식참가자들이 앞으로는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고 낫과 붓을 억세게 틀어쥐고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우리와 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김정은》, 《결사옹위》의 함성이 9월의 하늘가를 진감하며 메아리쳤다.

전체 참가자들은 당중앙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국가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양양의 시대를 열어나감으로써 고귀한 투쟁으로 쟁취하고 떨쳐온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를 끝없이 빛내어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본사기자